

3월 1주 수행일기

지난해 여름 고등학교 친구인 한국인 황진이를 통해 금강경독송회를 알게 되어, 한국 포항에 있는 금강정사에서 1달간 다른 영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금강정사에 가기 전 마음을 닦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처음 도량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잘 적응하고 싶고, 또 거기서 공부하시는 모든 수자(修者)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말에 동조하며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도량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받은 뒤로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미륵존여래불' 정진하면서 부처님께 그 마음을 많이 바쳤습니다. 바치다보니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 리처드(上)

캠브리지대 고전전공 2년



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조차도 의심했었거든요. 제가 닦아야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참 지나갈 때까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량에 재미난 일이 없어서 의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한국인 고교친구와 금강경 독송회 참여

'6가지 마음 살림살이'로 자신감 생겨

제가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저도 제가 소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다지 문제점이 아니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이런 마음 때문에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 또한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자주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마음도 조금 닦았습니다. 지금은 바치기 전보다 더 안정되고 미래에 대해 덜 불안합니다.

또한 법담을 나누면서 제가 의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연습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이 되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난 다음에서야 또 의심했구나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었고 조금씩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발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마음을 닦고 싶어하는지, 마음 닦

고 싶을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법문 번역이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바치고 나니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고 번역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습하려고 했던 또 한 가지는 마음 살림살이입니다. 금강경독송회에서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하는 것 외에 6가지 '마음 살림살이'를 가르치는데,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워 잡는 마음을 연습하라.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제 곧 내 허물인 줄 알라.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연습하라. 누가 뭐라든 '예'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라.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라. 올라오는 마음을 미륵존여래불 전에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 (계속)

12월 28일 저녁 8시경, 서울 정릉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보림선원은 환하게 불빛을 밝힌 가운데 수행 열기를 뽐내고 있었다.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린 후 선방에 들어서니,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37세의 김정애 회원부터 70세의 구인회 회원에 이르기까지 20여 보림회(회장 이수열) 회원들이故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법문을 테이프를 들으며 웅맹정진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한국 현대 거사불교의 큰 봉우리이던 스승 백봉 거사의 이날 법문은 "화두를 들지 못하는 평상시에 청정심을 갖고 살아가야 늘 깨어있을 수 있다"는 설법이요지. 1시간 가량의 설법 테이프가 다 돌

헤지기 위한 말귀'라는 뜻에서 '새말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재가선풍을 일으켰다. 새말귀란 백봉 거사에 따르면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것이며, 바로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는 소식"이다.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침에는 '모습(참자기; 無相의 法身)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다'라는 뜻으로 회의를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나투자'라는 여김으로 삼매에 잠길 줄을 알면, 이에

'새말귀 화두' 거사풍 생활선 계승 '매주 철야정진' 30년 가풍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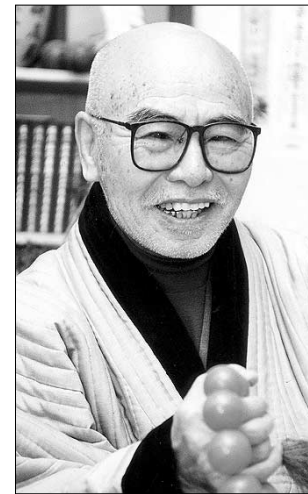
아가자 입정(入定)이 시작된다. 입승 소임을 보는 전청봉(51) 총무의 죽비 소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철야정진은 회원들의 치열한 구도심 탓인지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다. 백봉 거사의 도반이었던 보림선원 회주 묵산 스님의 지도하에 새벽 예불이 열리는 4시까지 50분 좌선에 10분 휴식, 그리고 50분 설법 녹음 듣기 순으로 계속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시간 좌선이 끝나면 1시간 법문 테이프를 듣는 것. 처음엔 의아했지만 백봉 거사의 설법 내용을 자세히 음미하니, 화두를 드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별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번쩍 나게 한다.

뒤에 알게 되었지만, 좌선과 법문 듣기를 되풀이하는 정진 방식은 생전의 백봉 거사가 지도한 수행방편이었다. 이른바 거사풍(居士風) 생활선을 주창한 백봉 거사는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처를 풀어

따라 깨진 뒤의 오후(悟後)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보림회가 제시하는 거사풍 수행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 만법인 '상대상'은 본래로 홀연히 독존하는 '절대상'의 굴림새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모습 없는 법신(無相法身)'이 '모습 있는 색신(有相色身)'을 굴림



좌선·법문듣기 반복으로 '나' 찾기



◇보림회는 30여년간 매주 주말 철야정진과 여름·겨울 1주일 웅맹정진을 쉬지 않고 있다.

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남이 특징이다. 30년간 매주 철야정진을 해 온 전청봉 총무는 보림회의 선풍을 이렇게 요약한다. "설법으로 화두 드는 바탕을 이루고 주말 및 1주일 철야정진으로 발심의 계기를 삼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말귀' 화두입니다."

1965년 창립된 보림회(www.borim.co.kr)가 이렇게 주말 철야정진과 여름,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웅맹정진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 온 지 어언 30여년. 120명의 보림회 회원들은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보림회의 '새말귀'

보림선원에서 재가선의 흐름을 이끌어 오고 있다. (02)914-618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보림회 지도 묵산스님 형상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부처' 알아야

"일할 때는 일을 충실히 하고, 운전할 때는 앞차 뒤차 잘 살펴야지요. 거기서 화두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일과를 정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보고 듣는가', 이렇게 궁리를 하다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때가 되면 행주좌와 어록동정이 화두가 됩니다."

보림회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보림선원 회주 묵산 스님. 거사풍 수행은 가정을 가꾸는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야 한다며 생활선의 요령을 일러준다. 참선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스님은 "불교를 믿어도 내가 믿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뿌리가 단단해야 공부 가 되고 신심이 나고 효과가 난다"며 자신이 부처요 허공임을 보라고 당부한다. "자기 살림살이는 내팽개쳐 놓고 남의 살림살이에 다 속아넘어가요. 돌부처에게 절하고, 적멸보궁 찾아다니는 식으로 하면 백만년을 해도 끝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부처를 놓고 형상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수행 캘린더

- 53선지식 초청법문=대구 영남 불교대학은 '53선지식 특별법문'을 주제로 1월 14일 오전 11시30분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 오후 8시 박완일(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법사, 21일 오전 11시30분 압도(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 (053)474-8228
- 보리수선원 초보자 수련=서울 보리수선원은 1월 11일부터 17일

- 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1월 초보자 수행을 연다. (02)517-2841
- 위빠사나 집중수련=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는 2월 16-22일(6박7일) 천안 호두마을에서 반야로까 성오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집중수련회를 연다. 성오 스님은 서울 홍원사와 부산 백련사, 미국 뉴저지 원적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051)632-8488
- 요가 명상=남원 실상사 귀봉 전문학교는 1월 17일 오후 6시 귀

- 봉전문학교에서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란 주제로 요가 명상 강좌를 연다. 선착순 20명, 참가비 15만원. (017)657-0582
- 소리산 주말수련회=양평 소리산 법왕정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까지 주말수련회를 연다. 한글 금강경 독경, 축원기도, 석가모니불 염불, 도인체조 건강법, 108배 예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11)222-3329
- 산티와남 겨울 요가캠프=산티와남 속리산 요가수련원(www.jshanti.com)은 1월 13-17일, 20-24일, 2월 3-7일, 10-14일, 17-2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요가캠프를 연다. (043)544-4406
- 해인수련동문회 수련=해인사 수련회동문회는 1월 25-26일 해인사 보광전에서 '해인사의 향기 수련회'를 연다. 연락처는 air-3000@hanmail.net.
- 심념처 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월 17-19일 묘원 법사의 지도로 사념처 수행의 하나인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한다. 2박3일동안 마

- 음의 무엇인지 알기, 마음 보기, 마음의 작용(心所) 보기, 아는 마음을 나는 것 보기 등의 수련을 한다. (041)567-2841
- 금강경 결제=남원 실상사는 2월 8일까지 '동안거 금강경 결제'를 진행중이다. 주제는 1월11일 '무아를 잃어버린 한국불교, 힌두교의 아류인가', 18일 '마음을 흐림인가, 불생불멸인가', 25일 '산나를 척파하면 허무주의가 되는가', 2월8일 '어떻게 산나를 극복할 것인가' 등. (063)636-3031